



미래창조과학부

<http://www.msip.go.kr>

보 도 자 료



보도일시	2015. 12. 31.(목) 조간(온라인 12. 30. 12:00) 이후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		
배포일시	2015. 12. 30.(수) 9:00	담당부서	국립전파연구원 기술기준과
담당과장	성향숙(061-338-4600)	담당자	채성철 사무관(061-338-4620)

무인항공기! 보다 넓은 주파수로 도약의 발판 마련

- 5GHz대역 무선설비 기술기준 도입으로 무인항공기 산업 활성화 지원 -

-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은 무인항공기용 주파수 수요에 부응하고, 안전운항을 지원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무인항공기 지상제어 전용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「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」을 12월 31일 개정한다고 밝혔다.

※ 무인항공기를 조정·통제하는 제어용 주파수는 지상의 통제설비에서 이용하는 '지상제어 주파수'와 위성에 탑재된 통제설비에서 이용하는 '위성제어 주파수'로 구분됨

- 금번에 기술기준이 마련된 5,030~5,091MHz 대역(61MHz 폭)은 전 세계적으로 무인항공기 지상제어 전용으로 주파수 분배가 되어 있으며, 최근에 무인항공기 관련 시장이 성장하고, 그 활용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해당 주파수 대역을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무선설비 기술기준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.

- 현재 무인항공기(주로, 소형 드론)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는 와이파이가 주파수 대역의 경우, 전파혼신 발생의 우려, 낮은 출력으로 인한 운항거리 제한 등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으나,

- 무인항공기 지상제어 전용 주파수(5,030~5,091MHz 대역)는 수많은 소출력 무선기기가 함께 이용하는 대역이 아닌 전용 대역으로서 전파혼신으로 인한 무인항공기의 추락, 충돌 등 사고위험을 최소화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무인항공기 운용 환경을 제공하고,
 - 아울러, 무인항공기의 출력을 최대 **10W**까지 운용(기존 비면허대역 무인기 출력은 10mW 수준)이 가능토록 하여, 매우 한정된 거리로 운용되던 무인항공기 운용 범위를 대폭 확장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될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.
- 국립전파연구원 관계자는 “금번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개정을 통해 아직 초기 단계인 국내 무인항공기 산업 생태계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, 우리나라가 향후 무인항공기와 관련된 국제표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”고 밝혔다. 끝.



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
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 채성철 사무관(☎ 061-338-4620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